

광산구 '천원한끼' 단골 어르신 늘었어요

저렴한 가격에 노인일자리도 제공 실버카·전동휠체어 이용도 편해 우산점 누적이용자 1328명 증가세

휠체어에 의지하는 어르신 A씨는 광산구 우산동에 문을 연 '천원한끼' 식당의 대표적인 단골이다. 다리가 불편한 탓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그는 이전엔 지역 복지관이 운영하는 경로식당을 자주 이용했다. 다만 동행하는 요양보호사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어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한다. 그런데 '천원한끼' 우산점이 문을 열면서 고민이 해결됐다.

A씨는 "천원한끼 식당은 문앞에 경사로가 있어 휠체어 타고 들어오기도 편하고, 요양보호사님도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할 수 있어 정말 좋다"면서 "마음 같아선 저녁도 여기서 먹고 싶은데 저녁에는 문을 안 열어 아쉽다"고 했다.

광산구가 지원하는 '천원한끼'는 고물가, 민생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인기 가득한 점심 한 끼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40세 이상 복지 1인 가구는 1000원에, 그 외 시민도 3000원만 내면 뜨끈한 콩나물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지난 5월 10일 우산동에 1호점을 열었는데, 외식하기 겁나는 요즘 저렴하게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개소 이후 5월 말 현재 '천원한끼' 우산점 누적 이용자(운영일 수 월 18일 기준)는 1328명으로, 하루 평균 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광산구는 "하루가 다르게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광산구 우산동에 문을 연 '천원한끼' 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1000원짜리 콩나물 국밥으로 맛있는 점심 한끼를 해결하고 있다.

단연 어르신 이용객이 많은데, 주로 전동휠체어나 실버카(보행보조차)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단골'이라고 한다.

'천원한끼' 우산점은 가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장애인,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편하게 식사를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썼는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고물가 시대 저렴한 식사 제공을 넘어 사회·경제적 약자, 취약계층을 보듬는 '착한 밥상돌봄' 모델로서 광산구 '천원한끼'가 갖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CN드메르웨딩 등 광산구 '천원한끼'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나눔과 후원도 이어지면서, 광산구는 취약계층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천원한끼'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정1동 '천원밥상', 침단1동 '선한식당', 침단2동 '진짜밥상', 송정2동 '송2송2 밥상친구' 등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밥상 돌봄도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천원밥상, 노인일자리 결합한 광산구의 천원한끼를 중심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배고프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하는 선한 영향력이 퍼지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심시일반 마음을 모아 차린 든든한 밥상이 더 많은 분에게 힘을 주고,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원한끼' 식당은 지역 상권과 상생을 위해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만 운영한다. 판매 수량도 하루 100그릇으로 한정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농가 82% 광산구 농촌인력증개센터 '만족'

평동농협·동곡농협 2개소 운영 372개 농가 일손 확보 지원

광주 광산구가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촌인력증개센터에 대한 농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5-6월 농촌인력증개센터 참여 농가 및 농작업자 13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매우 만족 39%, 만족 43%)인 114명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광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2021년부터 평동농협과 협력해 농촌인력증개센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에서 일할 인력을 모집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연결하고 농작업 참여자에게 교통비,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평동농협에 이어 동곡농협에도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설치하는 등 2개소를 운영 중이

다. 올 상반기 평동농협 농촌인력증개센터는 141개 농가에, 동곡농협은 231개 농가에 인력을 일선 증개했다. 증개 실적은 평동 1844건, 동곡 1563건에 이른다.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대다수 농가는 일손이 필요할 때 전화 한 통으로 원하는 날짜에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매월 1회 구직자 대상 교육으로 농작업 숙련도를 높인 것에 대한 만족도 역시 72%(매우 만족 23%, 만족 49%)로 높았다.

또 농작업 참여자들은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에 만족하는 이유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농작업 참여자 교통비와 수당 지원 만족도는 76%(매우 만족 22%, 만족 54%)로 나타났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역 농가가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 기반 일자리 제공이 늘어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침단2동 민·관 합동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



광주 광산구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침단2동 통장단·주민 등 60여 명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 광산구는 침단2동 상가 밀집 지역 내 입주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로 인한 경관 침해와 주민 통행 불편, 학생 안전 위험 등 문제점을 알리고 자진 정비 등 바람직한 광고 문화 인식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배성철 광산구 도시계획과장은 "불법 옥외광고

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지난 1월부터 주민 참여 수거보상제 확대, 365현장정비반 운영, '무관용 원칙' 과태료 부과 등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 광산구는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와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2곳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92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광산구 건강생활지원센터 2곳은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주민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우산마을' 사업으로 주민 건강모임을 구성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

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도록 뒷받침했다.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인 마을 아동 건강교육 ▲장애인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년여성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 만족도와 사업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번 수상으로 2016년 개소 이후 총 5회 우수기관 선정이란 영예도 안았다.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수완동의 건강지표를 분석해 마을의 건강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의 건강요구도 조사해 맞춤형 예방,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NH농협금융지주 계열사,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은행·생명·증권 등 임직원 50여명

광주 관내 NH농협금융지주 계열사는 "지난 25일 박흥식 비상임이사(광주비어농협 조합장)를 비롯한 농협은행 지점장, 농협생명·손해·NH투자증권 임직원 등 50여명이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인구감소·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임직원 봉사단은 양파 재배농가에서 비닐과 잡초제거 등 주변 환경 정화 작업을 했다.

박흥식 비상임이사는 "작은 일손이지만 우리 농촌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농협금융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18일과 20일에는 농협 광주본부와 네트워크 직원들이 광주 남구와 서구 소재 독거



어르신 집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활동도 전개했다.

NH농협 광주본부 박내춘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